진실을 만나다 - 밀레
WWW.MILLET.CO.KR

光州日報

광주 19/31℃ 목포 19/28℃ 여수 20/25℃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2-8111 광고문의 (062)227-9600 kwangju.co.kr 제19259호 1판 2012년 6월 25일 월요일

단기 4345년 (음력 5월 6일)

우암학원 창학62주년
광주의 새로운 명문 대학교 남부대학교 (062) 970-0114
꿈을 이루는 특성화 대학 전남과학대학 (061) 360-5050

민선 5기 중간평가

지난 2010년 7월 출범한 4년 임기의 민선 5기가 이달 말로 반환점을 돌아선다. 광주일보는 광주시와 전남도를 비롯 광주·전남지역 27개 시·군·구, 지방의회의 전반기 행정을 점검하고 후반기 과제를 진단하는 기획시리즈를 5회에 걸쳐 연재한다.

단체장만 의욕… 현장선 '나 몰라라'

❶ 불통으로 끝난 소통 노력

총인비리·수돗물·갬코·벼 직불금 마찰 '오점'

민선 5기 출범과 함께 광주·전남지역 광역·자치단체장들은 너도나도 '소통'을 앞세웠다. '풀뿌리 지방자치' 정착을 위해 소통과 참여를 통해 주민에게 한 발짝 더 다가가겠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전반기가 마무리되는 현 시점에 일부 자치단체는 성과를 거둔 반면, 상당수는 말로만 소통이었지 사실상 '불통' 행정에 가까웠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관련기사 3면〉

◇빛 바랜 광주시 소통=강운태 시장 취임 이후 민원인들을 직접 만나 민원을 해결하는 '시민과의 대화'가 80회 이상이 열려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수도권과 일부 지자체들이 벤치마킹에 나서며 '소통과 참여'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 내기도 했다.

하지만, 이러한 '소통'은 정작 공직 내부에서는 '불통'이 됐다. 시장이 직접 주민을 찾아 현장을 뛰고 기업유치 등을 위해 팔 소매를 걷어붙이고 나섰지만, 정작 실행 부서선 시민과의 '소통'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으면서 일부 사업의 진척이 더디고, 각종 논란이 제기되는 상황이 이어졌다.

광주시 개청 이후 최대 '뇌물 커넥션'으로 기록된 총인 처리시설 입찰비리 사건과 용연 정수장 수돗물 사고, 3D 한미합작법인의 부실 의혹 등이 잇따라 터지면서 강 시장의 '소통' 노력은 빛이 바랬다는 분석이다.

광주시 공무원노조에서는 시장의 측근 관리에 문제를 제기하고, 제왕적·수직적이 아닌 시장과 시민·공무원 간의 수평적 의사결정으로 행정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상황이 상당수 전임시장 당시 시작된 사업을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데다, 정치적인 인기몰이나 스킨십보다는 행정운영과 현안 사업에 올인하는 강 시장의 업무스타일에서 비롯된 '불가피한'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농도 전남, 농민과 잦은 마찰=전남도는 농민과 벼경영안정대책비(550억원) 지급 방식을 놓고 마찰을 빚으며 '농도 전남'의 이미지에 오점을 남겼다. 전남도는 농민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던 벼경영안정대책비를 올해부터 50%만 직불금으로 주고, 나머지는 벼 공동육묘장 등을 세우겠다고 방침을 변경해 농민단체가 지난 3월 도지사실을 점거하는 등 반발했다. 이 과정에 전남도는 일부 농민단체 간부들을 경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2면에 계속〉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박준영지사 대선출마 가닥

"늦어도 내달초 민주 후보경선 참여 선언"

대통령 선거 출마를 놓고 장고를 거듭해 온 박준영 전남지사가 대선 출마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박준영 전남지사측 관계자는 24일 "대선 출마를 놓고 고민을 거듭해 온 박 지사가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경선에 참여하기로 마음을 정리했다"며 "대선 후보경선 참여 선언은 늦어도 다음달 초가 될 것이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빠르면 오는 27일로 예정된 민선 5기 상반기 결산 기자회견이나 늦어도 다음달 초에는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경선 선언을 통해 본격적인 대선 행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박 지사는 후보경선 선언후 곧바로 대권 도전 세리머니와 대선 공약 발표를 통해 정권교체 등에 대한 자신의 구체적인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관심을 모아온 도지사직 사퇴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박 지사측 관계자는 "8월 12일에 끝나는 여수엑스포 등 도정 현안에 대한 진척 상황을 지켜보고 도민의 뜻을 헤아린 뒤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상 공직 사퇴시한은 선거일 90일 이전인 9월20일까지다. 민주당은 9월 말까지 대선후보를 선출한다는 기본계획 아래 7월 말까지는 경선 방식과 일정 등 경선룰을 마련할 계획이다.

박지사는 도지사직을 유치한 채 일단 민주당 후보경선에 나선후 경선룰을 보아가며 지사직 사퇴 여부를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 도지사직 사퇴는 여수엑스포가 끝나는 8월 중순에서 공직 사퇴시한인 9월 중순 사이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화물연대 오늘부터 총파업

광주·전남 2500여명 참여 물류대란 우려

화물연대가 25일 오전 7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 광주·전남에서는 2500여명이 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기아차 광주공장·광양제철소·여수산단 등의 물류 차질이 우려된다. 〈관련기사 8면〉

24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광주·전남지부에 따르면 광주지부는 25일 오전 11시 기아차 광주공장 서문에서 총파업 출정식을 연다. 전남지부도 같은 시간 광양 태인동·광양컨테이너부두, 순천 하이스코 정문, 여수산단 등 4곳에서 출정식을 하고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화물연대는 △표준운임제 법제화 △노동기본권 보장 △운송료 30% 인상 △유류세 인하 △산재보험 적용 등을 요구하고 있다.

파업에는 광주 1000여명과 전남지부 1500여명 등이 참여할 전망이다.

화물연대의 파업 예고에 따라 기아차 광주공장·삼성전자 광주사업장·금호타이어 등 대기업은 비조합원 위주의 비상 수송대책을 마련, 운영할 계획이다. 총파업을 앞두고 24일 새벽 부산과 울산, 경남 창원·함안 등에서 화물차 27대에 잇따라 불이 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앞서 콜롬비아를 국빈 방문 중인 이명박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각) 화물연대의 집단운송 거부 방침에 대해 "현 시점에서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라고 밝혔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광신대학교 한국가족치유상담교육원]
가정폭력상담원
■ 교육일시 : 2012년 7월 2일(월)~
※매주 월, 화, 목, 금 18:00 ~ (총100시간)
광신대학교
☎062)605-1112, 1063

광주 이주여성 베트남 니엠씨 친정 방문

지난 23일 오전 베트남 동탑성 압후종시 공지마 마을에서 친정집을 찾은 트란 티 트렁 니엠(왼쪽 두 번째)씨가 남편, 친정 부모와 함께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베트남=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4100㎞ 달려 4년만에 만난 가족 깊어진 아버지 주름에 눈물 왈칵

머나먼 귀향길이었다. 비행기로, 차로, 배로 4100여㎞를 내달렸다. 4년 만에 가는 친정집이어서인지 더 멀게 느껴졌다.

얼굴을 마주한 아버지의 주름은 더 깊고 더 많아졌다. 지난 2000년 어머니를 여의고 홀로 3남매를 키우느라 깊어졌을 주름에 왈칵 눈물이 쏟아졌다.

먼 타국으로 둘째 딸을 시집보내고 마음 졸여온 아버지도 아무 말을 잇지 못했다. 4년 간 보지 못했던 딸의 얼굴만 어루만졌다.

지난 23일 오전 베트남 동탑성 압후종시 공지마 마을. 지난 2007년 한국인 서형창(46·광주 남구 월산동)씨와 결혼해 광주에 정착한 트란 티 트렁 니엠(26)씨의 친정마을이다. 베트남과 캄보디아 국경지대 마을로, 메콩강 위에 떠있는 작은 섬 마을이다. 인천공항에서 3846㎞를 비행해 호치민에 도착한 뒤 차로 도로를 달리고, 배로 메콩강을 거슬러 7시간을 달려야 다다르는 '오지마을'이다.

둘째 딸이 한국에서 낳아온 손자(3)·손녀(5)를 품에 안은 니엠씨의 아버지 트란 반 섬(50)씨는 "낯선 땅에 시집 보낸 아버지 마음이 오죽했겠느냐. 항상 건강하고 행복했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이렇게 단란한 가정을 꾸리고 잘 살고 있다는 게 고마울 뿐이다"며 딸의 어깨를 다독였다.

니엠씨는 "12년 전 어머니를 여의고 홀로 계시는 아버지가 항상 그립고 잘 지내는지 궁금했었다"며 "주름살이 많기 늘긴 했지만, 건강하게 일하며 가족들을 키우고 있는 아버지를 보니 이제 마음이 놓인다"며 아버지의 깊어진 주름살을 어루만졌다.

이주여성인 니엠씨는 지난 2000년 어머니가 심장병으로 사망하자 농사일로 4남매를 키우는 아버지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홀연히 한국행을 결정했다. 2006년 혼인신고를 한 뒤 당국의 결혼 불허로 한국행 비행기를 타지 못한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남편 김씨가 7차례에 걸쳐 1000리 길도 마다하지 않고 먼 오지마을까지 찾아가 구애를 했다. 이를 본 가족들이 한국인과의 결혼을 허락했고, 니엠씨는 곧바로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그리고 4년이 흘렀다. 남매를 낳고 단란한 가정을 꾸렸지만, 일용직 근로자로 일하는 남편의 경제사정 때문에 친정 방문은 엄두도 내지 못했었다.

광주시의 다문화가정 모국방문 프로그램에 선정된 덕분에 4년 만에 남편과 두 자녀를 데리고 친정집을 찾았다.

여기에 다문화가정을 지원하는 봉사단체인 (사)희망나무(이사장 류한호, 공동대표 정승욱·이영창)와 광주의 의료봉사팀이 친정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의료봉사까지 나서면서 니엠씨의 이번 친정방문은 '행복 플러스' 그 자체였다.

/베트남=최권일기자 cki@

메르세데스-벤츠 공식딜러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
한-EU FTA 관세인하가격 선적용 판매
062)226-0001
신성자동차㈜ www.gjbenz.com
Mercedes-Benz

호 소 문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의 지연으로 사업성이 상실되어 광주도시공사와 광주광역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밖에 없게 되어 광주시민 여러분께 대단히 죄송합니다."

1. 현재 민간사업자는 2012년 6월 현재까지 1,195억원【보상비 463억원, 공사비 551억원, 제반 공과금등 181억원】을 투자하여 체육시설 공사를 완공하였습니다.
유원지는 광주광역시, 광주도시공사와 합의하여 구성한 T/F팀 회의에서 정책방향을 마련 중이라고 합니다.

2. 민간사업자는 장기간의 불발탄 제거작업 지연으로 전체 관광단지의 사업성이 상실되어 여러 차례 제3자에게 사업양도를 추진하였으나【M건설, 광주도시공사가 추천한 L건설 등】모두 무산됨에 따라, 2011년 1월 4일 사업반납 의견을 제출하였고, 2011년 1월 5일 시장님 지시로 당사를 방문한 광주광역시, 도시공사와 합의 **【각종 보상비 및 부담금을 선 해결, 유원지 조성사업은 전문연구기관에 사업타당성 검토를 추진, 그 결과를 반영하여 시행, 재해를 대비하여 상부에 위치한 체육시설 공사 먼저 추진하자는】**가 이루어져, 기투입비 407억원 외에 협의 이후 2012년 6월 현재까지 약 788억원을 추가 투입하는 등 광주시민과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민간사업자는 총 1,195억원을 투자하였습니다.

3. 광주광역시 및 광주도시공사와 합의하여 추진한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 결과에 의하면 (관계 분야의 권위 있는 교수들과 합동으로, 전남대학교산학협력단에서 수행)
- 전체사업 : 가장 낙관적인 경우 820억원 손실,
가장 비관적인 경우 1,488억원 손실이 예상되었고,
- 2018년 기준 연간 120억원 손실(체육시설 14억원, 유원지 91억원, 경관녹지 15억원)이 예상되어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는데,
광주광역시와 광주도시공사는 당초 사업계획(2005년)대로 시행하라고 강요하고 있으나, 민간사업자가 파산하게 되면 그 손실을 광주광역시와 광주도시공사가 떠안아야 할 것입니다.

4. 민간사업자는 최초의 사업계획에 사업타당성이 없어 수차례에 걸쳐 광주광역시와 광주도시공사에 해결방법을 요청하였고, 심지어 광주광역시가 구성한 T/F팀 제3차 회의(2012. 5. 8)에서 많은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어등산 관광단지 미완성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이미 투입된 비용 가운데 **약 320억원을 광주광역시에 기부하고 유원지는 공익개발로 하는 대안까지 제시하였음**에도, 광주광역시와 광주도시공사는 계속 수용하지 않고 있어 불가피하게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도록 되었습니다.

5. 불발탄 제거작업이 2010년 11월 말이 돼야 완료되고, 완료된 이후에야 공사에 착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공모 당시인 2005년도에 알았다면,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에 사업제안서를 제출할 기업은 없었을 것입니다.

6. 본 사업에 사업타당성이 없게 된 근본 이유는 불발탄 제거 작업이 3년 8개월이나 지연된 데에 있으며, 불발탄 제거 책임은 국방부에 있으나, 불발탄 지연으로 인한 사업손실 책임은 광주광역시와 도시공사에 있습니다.

7. 광주 시민 여러분 !
이 사업이 끝내 현재 상태로 중단될 경우 모두에게 큰 손실입니다. 지역기업인 민간사업자는 부도를 피할 수 없고, 피고용자는 일자리를 상실할 것이며, 벌거숭이 상태로 방치된 유원지는 도시미관뿐만 아니라 장마시 자연재해 위험에 노출되어 재해 위험을 면키 어렵습니다.
현재 사업자는 투자비 정산만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언제든지 사업을 양도하겠습니다.

8. 광주 시민 여러분 !
조속한 시일 내 현실여건에 맞는 유원지 개발방향이 결정되어 어등산 관광단지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광주시민 여러분께서 뜻을 모아주시길 두손 모아 부탁드립니다.

2012년 6월 25일

어등산 관광단지 민간사업자 [(주)어등산리조트] 임직원 일동 올림